

렘 쿨하스 건축의 장소적 특성과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eatures and Interpretation of Placeness of Rem Koolhaas' Architecture

박형진* / Park, Hyung-Jin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lace of modern architecture based on the place theory of C. N. Schultz. For applying Schultz's theory to the modern architecture, it is required to examine the modern cityscape, features of inner space of architecture and features of program. By analyzing the avant-garde architecture of Rem Koolhaas on such basis, the potentiality of placeness of modern architecture could be verified and the alternatives would be searched.

It is inferred that the placeness features of Rem Koolhaas' public architecture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pretation of program based on the humane background rather than the physical aspects of surroundings. The inner space shows the non-linear features, the metaphor of city. The obscurity of physical boundary illustrates the flexible features with ambiguous boundary. Consequently, the inner space expresses the surreal atmosphere that doesn't match the purposes of usage of architecture, the traditional concept. The outer shape is recognized as the by-product from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l program rather than it considered the surrounding context. The outer shape has the relatively simple formative shape and contrasts against the complicated inner space by using the non-physical materials.

It is found that Koolhaas' architecture doesn't pursue the features of placeness of traditional concept. However, It is inferred that his architecture has the possibility of placeness by attaching the meaning through the social roles of each architecture. It gives the substantial suggestion to the modern architecture that can't easily acquire the placeness of traditional concept due to the environment of modern city.

키워드 : 숄츠, 현대건축의 장소, 프로그램, 렘 쿨하스, 공공건축

Keywords : C. N. Schultz, Placeness of Modern Architecture, Program, Rem Koolhaas, Public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복잡, 다양한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축 분야도 근대 이후의 포스트모던, 1980년대의 해체주의 건축을 넘어서 폴드 건축, 디지털 건축 등 시대상을 반영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축에서 장소 이론은 근대 건축의 전체성, 확립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60년대 무렵에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다원화된 현대건축의 장소적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장소상실로 비판받는 현대도시의 특성이 현대건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히 대다수의 현대건축물들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본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숄츠(C. N. Schultz)는 실존적 장소이론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건축을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숄츠의 실존공간은 주변 환경과 현존재¹⁾ 사이를 매개하는 건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건축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실존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장소적 개념을 토대로 무조건적으로 현대건축을 장소상실로 비판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숄츠의 실존공간의 이론이 의존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현존재는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자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현존재의 본질은 그(바로 그 인간)의 실존에 있다. M. Heidegger,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2006, pp.27~32

* 정희원,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겸임교수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숄츠의 수정된 장소이론을 통해 현대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숄츠의 장소이론의 현대건축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연구 대상인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건축은 일면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장소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도시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개념을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대도시의 인문적 상황을 고려한 '거대함'의 개념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결정한다. 또한 주변의 도시적 상황은 상징과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 실내공간에 표현된다. 콜하스가 지향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내부공간의 장소적 특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내, 외부공간의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이전의 건축과 차별화됨으로써 실내디자인의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가장 선구적이며, 전위적인 건축가인 콜하스의 건축의 내, 외부공간에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건축의 장소적 대안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숄츠는 실존과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건축을 파악하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²⁾ 부연하면 다소 사변적일 수 있는 실존적 개념을 합리적인 구조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숄츠의 장소이론의 전개방법을 따르게 된다.

우선 2장에서 숄츠의 실존적 장소이론을 개론하고 구조분석의 개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숄츠의 장소이론을 현대건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대건축의 배경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현대도시와 건축의 특성을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각 절의 후반부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렘 콜하스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숄츠의 장소 이론과 현대건축의 배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콜하스의 공공건축에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 사례는 콜하스의 도시관과 내부공간의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시 도서관 계획안과 그 개념이 실현된 국내외의 2작품씩을 각각 선정하였다.³⁾

2)현상학과 구조주의간의 대립은 1960년대의 사르트르와 레비스트로스의 논쟁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두 사상은 주체를 보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반명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6, pp.54~56

3)보다 자세한 사례 선정 기준은 <4.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참조

2. 숄츠의 장소 이론

2.1. 실존 공간의 개념

숄츠는 “인간의 공간에 대한 흥미는 실존에 근거한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역동적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다.⁴⁾ 실존이라는 것은 존재적 의미에서 주어진 환경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공간은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쉼마(schema)⁶⁾이다. 숄츠에 의하면 쉼마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인 기본 구조를 지니며 사회, 문화적으로도 합의된 것이다.⁷⁾ 이들이 하나가 될 때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안정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쉼마는 실존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존공간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체화시킨 것이 다름 아닌 건축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존공간, 다시 말해서 구체화된 건축공간과 장소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숄츠는 실존공간의 구체화는 장소의 혼 또는 장소의 정신이 가시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실존적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소이론을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의 장소는 실존의 통합된 부분이며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어떤 것으로서 물질, 형상, 재질,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숄츠는 이러한 총체적인 특성을 지닌 장소를 요소와 관계를 통한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2.2. 구조주의적 관점

(1) 총체적인 개념의 장소

숄츠의 장소이론은 실존공간에 근거하며, 이론의 전개는 구조주의적 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에 적용되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전체성', '변형', '자율통제'가 있다.⁸⁾ 숄츠의 장소 이론은 위의 세 가

4)C. N. Schult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2002, p.7

5)숄츠의 실존공간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근거한 것이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는 '사용사태(쓰임)'에 의해 '제자리(놓일 자리)'를 부여받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공간'은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인간)'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숄츠는 사고나 지각의 차원이 아닌 인간 존재의 차원에서 공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M. Heidegger, 이기상 역, 앞의 책, pp.155~159

6)숄츠는 피아제의 이론을 차용하여 쉼마(Schema)를 공간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숄츠의 실존 공간의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는 피아제(J. Piaget)의 인지와 생물학적 순응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J. Piaget, Translated M. Piercy and D. E. Berlyne,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Routledge, New York, 2002, pp.8~9

7)C. N. Schultz, 앞의 책, 2002, p.13

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실존공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요소주의적인 분석을 지양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실존적 개념의 건축 장소를 '전체성'을 지닌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요소를 구분하여 관계를 통해 파악한다. 실존 공간을 보편적인 기본 구조(archetype)와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기본 구조는 중심, 방향,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소간의 복합적 관계를 통해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주를 정주지, 도시공간, 공공기관, 주택의 4단계로 구분하고 정체성과 정위의 개념을 포함한 형태학, 위상학, 유형학적 측면으로 분석한다.⁹⁾ 또한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하여 자연장소를 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경관으로 구분하고 인공장소를 대응하여 연결하는 구조분석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¹⁰⁾

구조주의적 방법론의 특성인 '변형'과 '자율통제'의 개념은 관련되며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¹¹⁾ 슈츠는 이러한 개념을 장소의 지속성과 변화의 문제로 규정하고 '주제(theme)와 변주(variat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¹²⁾ 슈츠에 의하면 장소는 변화하지 않는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것이다. 어떠한 장소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장소의 혼이 있으며, 이를 '주제'로 보았다. 그러나 장소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재창조되는 것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주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장소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변주'의 역할을 한다. 인공장소는 뿌리 깊음에 대한 현시를 넘어서는 인간의 문화와 목적에 따라 재창조되는 것이다.¹³⁾ 환언하면 장소는 장소의 혼이라는 '주제'와 이를 변화시키는 '변주'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의해 구체화되며 변화하는 것이다.¹⁴⁾

(2) 실존개념의 안정된 정위

슈츠의 웨마는 정위와 더불어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¹⁵⁾로서의 공간성

을 완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공간 안에서 행동하면서 심리적으로 일정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슈츠는 정위를 '외부 환경과 관계하여 실존을 구체화하여 내부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위는 웨마의 공간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슈츠는 공간 웨마를 본질적으로 위상학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공간 웨마가 접근성, 연속성, 폐쇄성 등에 의한 위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하학적으로 명확한 형태를 갖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¹⁶⁾ 즉, 위상학적인 공간 웨마를 인간의 지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 축, 영역의 기본 요소로 파악한다.¹⁷⁾ 이는 슈츠가 실존공간의 기본적 속성을 수평, 수직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심, 축, 영역 등의 구조화된 기하학적 공간구조에 더 큰 실존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슈츠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의 공간 지각이 어떠한 의미 체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웨마'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웨마를 안정된 이미지로 묘사하며 변화에 무디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환경에서의 실존 공간조차도 폐합성, 근접성에 의해 형성된 안정된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다.¹⁸⁾ 중심이 없는 상태의 이동은 안정된 장소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며,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⁹⁾ 이는 유동적인 세계보다 안정된 장소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장소의 정체성과 인문적 요인

정체성은 장소가 갖는 포괄적인 성질, 성격의 개념이다. 인간의 환경 이미지는 어떠한 질적 통일성에 의해 구별되는 확장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성격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서 장소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정체성은 외부의 형상적 측면과 내부의 분위기를 통해 나타나며 본질적으로 표면적인 성질을 갖는다.

하이데거는 사물을 "세계의 모임"으로 정의하였다.²⁰⁾ 즉, 사물을 구성하기 위해 세계의 땅, 하늘, 인간, 신이 모인다. 세계는 사물을 조건 지우며 역으로 사물은 세계를 모으는 것이다. 사물은 곧 세계의 구조이며 존재는 조건 지워진 것이다. 존재의 정체성은 사물의 이해를 통해 세계를 얻는 것이다. 슈츠는 하이데거의 사물의 개념을 거주에 적용하였다.²¹⁾ 다시 말하면 거주

8) Jean Piaget, 김태수 역, 구조주의 이론, 인간사랑, 1994, pp.19~30
 9) C. N. Schultz, 앞의 책, 2002, p.13, pp.34~73/ C. N. Schultz, 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5 참조
 10) C. N. Schultz,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pp.50~62, pp.84~93
 11) 전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을 갖게 된다. 변형의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지니며 역동적인 것이 된다. 자율통제는 구조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스스로 조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Jean Piaget, 앞의 책, pp.19~30
 12) C. N. Schultz, 앞의 책, 2001, p.201, p.213 참조
 13) 본 연구에서는 슈츠의 견해에 따라 인간의 문화와 건축물의 목적을 개별적인 건축 장소를 현현(顯現)하는 동인(動因)으로 본다. 위의 책, p.196, pp.205~206, pp.211~213 참조
 14) 슈츠의 이론에 나타나는 장소를 형성하는 '주제'와 '변주'는 현대건축에서 역전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즉, 현대건축에서는 주변 환경의 고유의 장소의 혼 보다는 인문적 요인에 의해 장소적 특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3.3 현대건축의 프로그램의 해석과 장소> 참조
 15) 현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현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존재자 전체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재는 세계 속에 감싸여 있다. 세계는 현존재의 한계

와 같은 것이다. M. Heidegger, 이기상 역, 앞의 책, pp.80~89
 16) 그의 장소론을 집약한 후기의 저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공간의 요소들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형태를 갖는다면 자연으로부터 추상화되어진 또는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의 조직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C. N. Schultz, 앞의 책, 1995, p.26,
 17) C. N. Schultz, 건축론, 정영수 역, 세진사, 1987, pp.46~56 참조
 18) C. N. Schultz, 앞의 책, 2001, p.211
 19) C. N. Schultz, 앞의 책, 2002, pp.74~80
 20) M. Heidegger, translated by Albert Hofstadter, Poetry, Language,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71, pp.163~184
 21) C. N. Schultz, 앞의 책, 1995, p.17

의 의미를 사물의 의미에 유비(類比)하여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거주 의 실존적 의미는 세계를 현시(顯示)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장소의 혼은 실존공간을 구체화하는 주체가 되며 술츠는 이를 '주제(theme)'로 보았다.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인공장소의 구체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또한 “셰마는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술츠의 주장처럼 실존공간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구체화한다. 위의 인간의 목적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변주’로서 개별적인 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술츠가 도시적 상황에서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인문적인 요인에 의해 장소적 특성이 결정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²²⁾ 환언하면 인공장소는 자연환경과 관계되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하며, 구체적인 각각의 대상지의 상황에 적절한 해결을 통해 정체성을 얻게 된다.

3. 현대건축의 장소의 배경 고찰

2장에서 고찰하였듯이 술츠는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하여 경관-건축을 그림-형상의 관점으로 건축의 장소를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실존공간의 정위를 상당히 안정적인 이미지로 간주하며, 기하학적인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주변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장소의 혼을 ‘주제’로 보며, 인간의 목적과 사회, 문화적 요인을 ‘변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술츠의 이론을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주변의 도시경관은 과거와 많은 측면에서 상이하며,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건축의 공간 역시 너무도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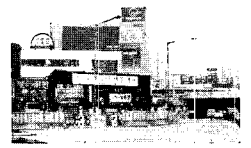
3장에서는 술츠의 장소이론을 현대건축에 적용하기 위해 현대도시와 건축의 배경적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선 현대 도시경관이 건축의 장소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현대건축의 내부공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술츠의 정위 이론을 재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축에서 건축가의 프로그램의 해석이 장소적 특성에 끼치는 원인과 배경을 파악한다. 각 절의 후반부에서는 연구 대상인 콜하스의 건축에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게 된다.

3.1. 현대도시의 경관과 건축의 장소

근대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900년대 이전부터 이미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었다.²³⁾ 급속한 도시

화는 현대 도시의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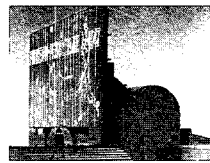
렐프(E. Relph)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근대와 포스트모던의 건축을 조사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²⁴⁾ 술츠와 유사하게 도시-건축의 관계를 배경-형상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림 1> 혼잡한 도시경관

있는 것이다.²⁵⁾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대건축에서 도시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누적된 현대의 도시경관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복잡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림 1>.

반면에 벤츄리(R. Venturi)의 ‘장식된 셰드(Decorated Shed)’에서 나타나는 ‘상징으로서의 입면’과 ‘입면과 내용물의 불일치’



<그림 2> 국립 축구 기점관 계획안, 벤츄리

의 개념은 현대 건축의 도시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대건축에서 외부입면은 상징성을 갖는 허구적 성격 일뿐 배면의 건물의 기능(목적)과는 분리되는 것이다.<그림 2>.²⁶⁾ 이는 오늘날의 도시 경관과 건축물의 내용물은 관계가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벤츄리와 콜하스의 도시관은 주어진 현실을 긍정하고 판단을 유보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벤츄리의 관심이 건축물 외관의 상징성에서 내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콜하스의 도시관은 건물 내부와 밀접히 관계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²⁷⁾

콜하스는 1994년의 ‘거대함’의 선언을 통해 현대의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적 통합을 제안한다.²⁸⁾ 콜하스는 도시에서 건축의 규모가 거대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거대함’은 콜하스의 도시관을 수용하기 위한 건축 개념이다. 일찍이 콜하스는 현대 대도시의 특성을 수평·수직의 그리드, 밀집문화의 상황,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준층, 내부 공간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등이라고 하였다.²⁹⁾ ‘거대함’의 개념은 도시의 밀집문화를 수용한다. 즉, 거대함의 개념을 통해 공간은 도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는 도시를 흡수하여 배경-형상으로 이해되는 도시-건축의 관계를 중시시킨다.³⁰⁾ 거대함 그 자체로 도시인 것이다.

콜하스는 지시 도서관과 MVRDV의 VPRO 사옥과의 단순한 유사성이 문제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시 도서관이 공공영역에 대한 은유로서 의사(擬似)도시

22)술츠에 의하면 인간의 목적과 사회, 문화적 요인은 장소를 결정하는 ‘변주’에 해당한다. 위의 책, p.19

23)짐멜을 비롯한 대다수의 근대도시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은 근대의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술츠는 주변 환경을 자연만으로 지나치게 한정된 측면이 있다. 위의 책, pp.144~145.

24)E. Relph, 김동국 역, 근대도시경관, 태림문화사, 1999, p.19, pp.225~278

25)다시 말하면 렐프는 경관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을 조사하며, 술츠는 실존적 공간의 개념을 위해 건축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파악한다.

26)R. Venturi, 라스베가스의 교훈, 태림문화사, 1983, pp.82~100

27)김경훈, 램 콜하스의 ‘거대함’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pp.42~45

28)OMA, R. Koolhass and B. Mau, S,M,L,XL, THE MONACELLI PRESS, 1995, pp.511~512

29)R. Koolhass, 김원갑 역, 정신착란증의 뉴욕, 태림문화사, 1998, pp.71~95

30)봉일범, 누적도시, 시공문화사, 2005, p.71

를 표현하기 위해 접어놓은(folded) 것임에 반해 VPRO는 사적인 사무실로서 교외의 목초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³¹⁾ 즉, 도시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던 주시 도서관의 의사-도시의 개념이 목초지에 위치한 VPRO 사무실에 유행처럼 이식된 것이 문제인 것이다<그림 3>.



<그림 3> VPRO, MVRDV

콜하스의 주시 도서관은 ‘거대함’의 개념을 통해 입면과 내용물의 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을 위한 무대로서 3차원적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의사-도시적 내부공간을 지닌다.³²⁾ 요컨대 콜하스에게 도시적 배경은 은유, 상징적 방법을 통해 내부공간에 이식됨으로써 장소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2. 현대건축의 내부공간의 특성과 장소

현대도시의 건축은 동시대의 사회적 양식으로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다양성과 혼재, 복잡성과 이질성, 디지털 미디어를 비롯한 기술의 발달 등은 건축 공간에 비유클리드적, 비선형적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숄츠의 장소이론을 통해 현대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분석하려면 기하학적, 안정적 이미지의 정위의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콜하스는 현대의 도시적 상황, 밀집성, 불안정성 등을 반영하여 현대의 전위적인 건축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선형적, 비유클리드적인 건축언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축가이다. 앞서 고찰한 콜하스 건축의 내부공간의 ‘거대함’, ‘의사-도시’ 그리고 유선형의 ‘프로그램의 띠’의 개념은 실내공간에 비선형의 조형적 특성과 유동적인 내부 공간, 그리고 공간간의 경계의 모호함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콜하스에 의하면 현대의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건물은 내부의 거대함으로 인해 표면과의 도덕적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림 4>³³⁾ 건물의 중심공간을 통해 공간적 통합성을 획득하며, 내부의 각 영역들은 보이드 공간을 관통하는 경사로로 연결되는 특성을 갖는다.³⁴⁾ 또한 의사-관계적 도서관의 개념으로부터 바닥의 슬라브는 융기되며 그곳에 각 영역이 유연하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선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띠’의 개념은 초기의 도시계획안³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의 직선 형태의 띠는 건축물에 적용되면서 실내 공간에 변형된 유선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세 가지 개념



<그림 4> 제부르지 항만터미널의 거대함

념은 상호 연결되어 콜하스의 내부공간의 유동적, 비선형의 조형적 특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프로그램의 띠는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수용한다.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 물리적인 구획을 지양함으로써 실내공간의 영역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실내공간의 특성은 네덜란드의 특수한 지형적 상황이 고려된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³⁶⁾ 물리적, 의미적으로 건축과 도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흐려지는 원인이 된다.

요컨대 콜하스의 거대함과 프로그램의 띠의 개념은 비선형적인 조형적 특성과 유동적인 내부공간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개념은 내부공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외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안정된 정위의 개념과는 상이한 장소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3.3. 현대건축의 프로그램의 해석과 장소³⁷⁾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18세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의 계몽주의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박물관, 병원, 교도소 등의 공공 건물의 용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이전과 다른 유형의 건축을 창조하였다. 이는 변화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구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결과였다.³⁸⁾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문적 요인이 장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건축에서 프로그램은 건물의 용도에 따른 세부 기능들의 목록이라기보다는 사건들의 고안이라는 전략적 개념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제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형태를 결정한 MVRDV의 Wozoko Housing(1997), 기숙사의 개인적 공간의 통념적인 중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인 영역을 부각시킨 세지마 카즈요(Kazuyo Sejima)의 Saishunkan Women’s Dormitory(1991), 시간대별 사용빈도를 분석하여 24시간 동안 고밀도의 상태를 유지하



<그림 5> 요코하마 도시계획의 시간-프로그램 그래프

도록 계획된 콜하스의 Yokohama Urban Ring(1992) 등의 예는 현대 건축에서 작가의 프로그램의 해석이 건축의 기능과 물리

31)위의 책, pp.131~132

32)본 연구의 사례 분석 (1) 참고

33)OMA, R. Koolhaas and B. Mau, 앞의 책, pp.500~501

34)김경훈, 랩 콜하스의 거대함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pp.51~54

35)제한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수평띠의 개념은 ‘Exodus’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라 빌레트 공원 계획안’에 유사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36)김석영, OMA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실내공간의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01 참조

37)숄츠는 인공장소는 뿌리 깊음의 현시를 넘어서 인간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공장소는 주변 환경 고유의 장소의 혼란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숄츠가 도시의 장소는 자연환경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우리는 현대건축의 장소가 주변 환경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장소의 ‘주제’와 ‘변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2장 2절 참조

38)J. Summerson, 18세기건축, 태림문화사, pp.135~188 참조

적 측면을 지배하는 단적인 예이다<그림 5>.

맨하튼의 연구를 통해 도시적 관점으로 추출된 콜하스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³⁹⁾을 비롯한 거대함과 너염절제수술 등의 개념⁴⁰⁾들은 1994년의 '거대함'의 선언을 통해 비로소 근대적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맹아로 전환된다. 콜하스에 의하면 거대해진 내부는 하나의 단일 공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공간 요소들 사이에 자율성 혹은 독립성이 존재한다. 이는 공간간의 물리적인 구분을 느슨하게 하여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띠'는 건물 내부에 시나리오적인 의미로 적용되면서 보행자의 동선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경사로로 치환됨으로써 경계를 더욱 더 모호하게 만든다.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는 의사-도시적 공간개념 역시 작가의 도시관에 의한 프로그램의 해석에 따른 결과물이다.

또한 콜하스의 "각각의 요소들이 '나는 도서관이다', '나는 사무실이다', '나는 입구이다'처럼 각각의 다른 요소들 사이의 종합적인 효과를 통한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우스운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입장표명은 개별적 건축공간의 해석은 프로그램의 개별적 해석에 의존해야함을 의미한다.⁴¹⁾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건축의 용도를 고려하거나 비례 등의 잣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건축 장소의 생성을 예견하는 것이다.⁴²⁾

4. 사례 조사 및 분석

4.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1) 사례 선정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콜하스의 건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콜하스의 건축은 주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외관과 내부공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개념의 장소성을 지닌 건축물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콜하스의 건축은 현대 도시사회의 복잡한 인문적 상황을 고려한다. 또한 현대도시의 입지,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전체적인 원리를 고려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상적인 관찰로 그의 건축을 장소의 상실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술관, 학교의 도서관, 다목적 시설 등의 공익을

39)콜하스는 마천루의 각 층간의 독자성과 단절성은 하나의 대지가 더 이상 예정된 목적과 프로그램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는 도시적 관점에서부터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의 개념을 도출한다.

40)R. Koolhaas, 앞의 책, 1986, pp.71~95

41)Jaqueline Lucan, OMA-Rem Koolhaa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p.37. 임동연, Rem Koolhaas 작품에 나타난 개방적 프로그램의 구현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42)앞의 요코하마 도시 계획안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연장의 생산과 소비되는 장소의 관계와 사회적 계급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계획한 카디프만 오페라 하우스, 1989년에 설계된 벨기에의 제부루지 항만 터미널을 비롯한 3개의 작품 등 대부분의 작품들이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상식을 뛰어 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목적으로 한 공공건물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입지를 갖는다. 또한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해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건물은 대개의 경우 도시적 배경을 지니며, 시대상을 반영한 장소적 특성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이는 현대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와 부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도시관이 내부공간에 극명하게 드러난 쥘시 도서관 계획안(1992)⁴³⁾과 그 개념이 실현된 쿤스트할(1992)과 에듀케토리움(1997) 그리고 국내의 리움(2004)⁴⁴⁾과 서울대미술관(2005) 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분석틀은 2장의 숲츠의 이론을 바탕으로 3장에서 고찰한 현대건축과 콜하스의 건축적 배경을 고려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표 1>.

<표 1> 분석틀의 설정

분석틀	
a. 프로그램	현대건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목적 등과 관련한 인문적인 배경이 장소의 정위와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 하에 이와 관련된 건축가의 프로그램의 해석을 분석
b. 정위	① 주변의 현대도시의 경관과 정위적 관계의 고찰 ㄱ. 외부환경과 내부공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정위적 관계 ㄴ. 내부공간과 도시경관의 경계적 측면이 정위에 끼치는 영향 (내, 외부의 전이적인 공간 특성, 공간의 모호함) ② 현대건축의 다양한 내부공간의 특성과 정위적 관계의 고찰 ㄱ. 유동적, 위상화적인 내부공간의 특성과 정위와의 관계 ㄴ. 내부공간의 영역 간의 경계의 모호함과 정위와의 관계
c. 정체성	① 건축물 외부형상의 측면 ⁴⁵⁾ ㄱ. 외부환경과 건물의 외부적 측면의 정체성의 관련성을 고찰 ㄴ. 'ㄱ'은 건물의 외부형상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건물의 조형적인 측면/ 경계면의 개구부/ 경계면의 마감(외부)) ② 건축물 내부의 분위기의 측면 ㄱ. 외부환경에 대한 은유, 상징 등의 다양한 건축적 해석이 내부공간의 장소적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 ㄴ. 'ㄱ'은 건물의 내부공간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내부의 건축적 요소/ 경계면의 개구부/ 경계면의 마감(내부))

4.2. 사례 분석

(1) 쥘시 도서관(Two Libraries for Jussieu University, 1992)

a. 프로그램의 해석: 콜하스의 의도는 새 도서관이 정해진 캠퍼스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알베르티의 원 계획안의 의도를 복원시킨다. 우선 알베르티

43)쥘시 도서관 계획은 내, 외부 공간의 분리, 슬라브의 변형을 통한 연속적 공간의 형성, 경계의 모호함을 통한 영역의 통합 등의 혁신적인 개념이 대부분 담겨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쿤스트할과 에듀케토리움에 대부분 실현되었다.

44)콜하스의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를 위주로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되, 다른 두 개의 전서관과의 정위적 관계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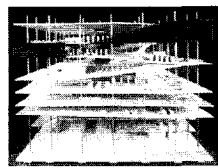
45)건축의 장소의 구조를 형성하는 정체성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외부의 형상적 측면과 내부의 분위기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박형진·김문덕,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6, p.94 참조

계획안의 앞뜰(parvis)의 텅 빈 공간을 -사회진출을 위한 무대로 은유된- 캠퍼스의 본질로 해석한다. 또한 현재의 기단(podium)의 문제점이 분산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층의 판들을 접어나감으로써 밀도를 증가시키고 2개의 도서관을 상하로 집적시킴으로써 밀도를 배가시킨다. 주어진 도서관의 입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문적인 해석은 도서관의 장소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b. 정위적 측면: 도서관의 정위를 결정하는 방위나 주변환경과의 물리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서관은 모든 것을 소통시키며 순환하는 3차원의 네트워크로 인식된다.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알베르티의 앞뜰의 텅 빈 공간이 사회진출을 위한 은유로서 경험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콜하스는 계획 대지의 표면을 훔 수 있는 사회적인 요술카펫으로 가정한다. 이것을 밀도를 위해 접는다. 접힌 슬라브는 주변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내, 외부의 전이공간을 상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림 6> 내부 개념도



<그림 7> 전체 모형

바닥면들은 선회(stack)하는 형태를 만든다. 이를 통해 끊임이 없는 다양한 곡면의 바닥의 사용으로 연속성이 부여된 유동적인 공간이 형성된다<그림 6>. 바닥면은 기울어지며, 모든 층들은 하나의 궤적(trajecory)에 의해 연결된다. 바닥면에 실내의 각 공간은 기능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되며, 이는 공간 간의 영역을 모호하게 한다. 실내공간의 비선형적 곡선과 유동성, 그리고 모호함은 내부적으로 독특한 정위를 형성하게 된다<그림 7>.

c. 정체성의 측면: 외관의 마감은 단순하고 투명하게 처리됨으로써 주변경관을 의식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도시적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듯하다.

은유,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 도서관의 내부는 도시적 배경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건축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의사-도시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상층부의 인문계와 하층부의 이공계 도서관의 사이에 위치한 정원(parvis)은 남쪽의 지하철과 북쪽의 센스강과 연결되면서 수직적, 랜드스케이프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도시 내의 건물들처럼 도서관의 특정한 프로그램들은 공공영역 속에 이식된다. 도서관 내부의 도시대로는 초기능적으로 도시화된 요소들 -플라자, 공원, 기념비적 계단, 카페, 상점- 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낸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분위기를 벗어난 독특한 장소적 성격을 부여한다. 도서관은 캠퍼스의 연장을 의미한다. 방문객은 책과 정보의 프로그램으로 둘러싸인 도시적 시나리오에 의해 끊임없이 방황하는 산보객의 관점에서 책과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8>.



<그림 8> 전체단면도(경사로와 곡면 슬라브로 연결된 단일 궤적을 형성)

(2) 쿤스트할(Kunsthall,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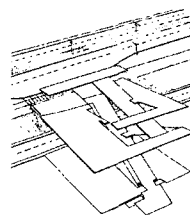
a. 프로그램의 해석: 도심에 위치하지만 대규모의 뮤지엄 파크 남단에 위치함으로써 자연 환경과 문화적인 배후를 지닌다<그림 9>. 이러한 입지와 용도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공원 이용객을 자연스럽게 유입하고 자유롭게 전시를 감상하며 여유 있는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복합문화시설로서 쿤스트할



<그림 9> 외관

은 입지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행위와 경험적 의미를 고려하게 된다. 즉, 주변 환경과 관람객의 자연스럽게 유입하고 이용객의 다양하고 복합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장소적 성격이 획득된다.

b. 정위적 측면: 주변의 도로와 공원의 축에 의해 건물의 정위가 결정된다. 북쪽에서 공원을 면하며, 남쪽으로는 6M의 고



<그림 10> 내부 개념도

저차가 있는 동서 방향의 두 개의 도로와 면한다. 하부의 낮은 도로는 건물을 동서로 관통한다. 남쪽의 공원에서 진입하는 슬로프는 건물을 관통하여 위쪽의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이로써 건물은 4등분 된다. 주변의 경관과 내부적 복합적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통합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판으로 구성된 나선형에 의한 프로그램의 띠가 내부공간의 정위를 형성한다<그림 10>.

콜하스는 각 공간의 프로그램들을 불확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공간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이로써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미로와 같은 내부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는 내부의 강당, 전시실, 등의 각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며 외부의 조건과는 별도의 내부적인 정위를 형성하게 된다. 요컨대 건물의 정위는 주변 경관과 내부의 프로그램적인 요인의 복합적 관계의 산물이다.

c. 정체성의 측면: 건물의 외관은 단순한 박스 형태이다.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해석하여 형성된 유동적인 내부 공간과는 대조적이다. 주변 환경을 형상화하거나 상징화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유리 등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⁴⁶⁾

내부공간은 은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이 나타남으로써 장소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즉, 내부공간의

46)건축의 외부면의 비물질적인 성격은 주시 도서관과 에듀케토리움에서 외관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사라지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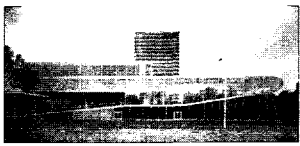


<그림 11> 내부 경사로

강의실과 경사로의 경계면의 유리를 통해 빛과 주변경관을 받아들인다. 또한 식당의 내부공간과 전시장 내부의 기둥의 마감재를 나무와 같은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진입부에서 시작된 램프는 옥상정원에서 하늘과 연결됨으로써 내, 외부를 관통함으로써 랜드스케이프적 내부공간을 형성한다<그림 11>.

(3) 에듀케토리움(Educorium, 1998)

a. 프로그램의 해석: 이 건물의 프로그램의 해석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스터플랜은 무표정함이 아닌, 사회적인 삶으로 가득 찬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 12> 외부 입면

캠퍼스 플랜의 사회적 성격이 이 건물의 조건이자 배후이며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배움의 공장임을 암시하는 에듀케토리움은 주위의 14개 학부생과 연구실원들이 사용

하는 만남과 교환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 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여서 사고 활동의 반복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강의동이 지니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진정한 장소적 특성의 파악이 가능하다.

b. 정위적 측면: 강의동은 대학의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건물의 정위는 주변의 물리적 경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변 건물에서 흘러나와 유입되는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유입을 위해 건물의 입구는 커다란 경사로로 형성되며 출입구는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 경사로와 출입구의 영역은 내, 외부공간의 전이적인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장소적 특성을 부여한다.

슬라브의 면적인 특성을 통해 내, 외부의 연속적인 공간이 형성된다. 내부로 진입하면 커다란 두 개의 강의동 사이에 4방향으로 열린 통로가 교차한다<그림 13>.



<그림 13> 내부 교차로

다소간의 여유가 확보된 그 곳을 통해 강의동의 사회적 목적이 실현됨으로써 만남과 교류를 통한 장소가 형성된다. 중심, 축, 영역이 사라지고 다양한 흐름의 공간만이 존재한다. 강의동은 내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정위가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되거나 경계 짓는 대신에 작은 로비나 라운지로 분할되는 구성을 취한다. 다중심의 공간, 미로의 공간, 모호한 정위적 특성을 갖는다.

c. 정체성의 측면: 주변 환경은 건물의 형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건물에서 도시적 상황은 인문적 조건으로 규정된 캠퍼스 마스터플랜이다. 주어진 조건과 프로그램의 해석은 내부적인 정위를 형성하며, 이는 투명한 외피와 곡면 슬라브의 노출로 건물의 형상에 그대로 나타난다. 건물의 입면은 사라지며, 단면만이 존재할 뿐이다<그림 12>. 뇌엽절제수술적 건축의



<그림 14> 초현실적 공간

극단적인 상황이다. 건물의 외관은 볼륨을 갖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어떠한 의미도 읽을 수 없다.

내부공간은 슬라브의 휘어진 형상과 현대적인 차가운 느낌의 소재, 조명과의 조화를 통해 초현실적인 장소감을 지닌다.<그림 14>. 외관에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외관에서의 비물질적인 효과와 함께 내부에서는 주변경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4) 리움·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Leeum, 2004)

a. 프로그램의 해석: 콜하스가 설계한 리움의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는 물리적으로 대지 경계선에 위치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콜하스는 본 작품을 설명하면서 현대의 모든 프로젝트에는 도시적 상황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주변환경의 맥락과 역사성을 고려한 건축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래의 미술관을 콘스트할 미술관처럼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혼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을 제안함으로써 장소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b. 정위적 측면: 콜하스의 건물은 입지의 특성상 세 작품 중에서 주변 환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그림 15> 외관 시뮬레이션

주변 주택가의 지하로 묻히는 형상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7m의 높이에 이르는 전체 공간 중에서 단지 1/3정도만이 지상으로 노출됨으로써 주변 환경

에 흡수되는 정위를 취한다<그림 17>. 또한 주변의 경사지에 순응하며 대지경계선을 따라 건축의 경계가 결정됨으로써 자연스러움은 배가된다. 또한 도로변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진입부는 경사로를 통해 건물 전체의 로비 내부까지 연속된다. 경사로는 문화센터의 거대한 내부공간까지 연속됨으로써 내, 외부공간의 전이적인 장소를 형성하게 된다<그림 16>. 뿐만 아니라 경사로에 연결된 건물 외부의 조각공원은 리움 주변의 주택가에 공공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장소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경사로로 연결되는 내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외부의 형상과 분리된다. 내부공간의 부유하는 블랙박스는 공간의 핵으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박스의 주변공간은 유동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각 영역에 유연하게 배치되게 되며, 이는 자유로운 어린이들의 성향에 어울리는 장소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c. 정체성의 측면: 도로면에서의 외부형상은 대지 경계면을 따라 건물 외벽에 불규칙한 윤곽선을 적용해 경사진 면과 어우



<그림 17> 단면도

러져 자연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입면을 취한다. 비물질적인 유리를 마감재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진입로 테크의 자연스러운 재질의 사용과 대조적으로 내부공간은 거대한 블랙콘크리트 박스를 통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스케일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아동문화교육센터라는 어린이를 위한 장소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5) 서울대 미술관(Seoul National Museum, 2005)

a. 프로그램의 해석: 서울대 정문 옆의 캠퍼스 내에 입지한 미술관은 캠퍼스와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미술관의 장소의 정위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은유적 해석은 미술관 내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 정위적 측면: 미술관은 경사진 대지에 위치한다. 건물 측면의 경사로를 따라 건물로 진입하게 된다. 경사로를 위해 매스의 측면 하부를 절개함으로써 공중으로 부양하는 듯하다<그림 18>. 경사로를 지나면 입구 앞의 비워진 정원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캠퍼스와 지역 커뮤니티 간의 교류의 장소로서 미술관의 정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 외관

입구로 들어서면 경사로의 끝에 안내데스크가 위치하며 이어 중심부 코어의 계단으로 연결된다. 코어는 지하1층에서 최상층까지 연결되며 건물의 주요 이동 동선이자 건물의 중심적 핵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시관, 강당, 열람공간이 연결된다. 특히, 공간을 구분하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내부공간의 정위는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주변의 경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부 공간은 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며 유동적인 장소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c. 정체성의 측면: 건물의 외부의 형상은 주변경관과 관계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즉, 건물은 철골구조가 외부로 드러난 단일 매스로 이루어졌으며, 날렵한 형태와 투명 소재의 외관으로 인해 다소 부담스러운 매스의 중량감을 완화시킨다.



a)경사로&안내데스크 b)계단식 강당

<그림 19> 의사-도시적 내부공간

<표 2> 종합분석표

		장소 분석	
주시 도서관	프로그램 해석	-주시 대학을 사회진출을 위한 무대로 보고 끊임없는 3차원 네트워크로 봄. 이는 의사(擬似)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방법으로 제안되며, 보다 높은 밀도를 형성하기 위해 두 도서관을 상하로 집적시킴. 캠퍼스의 본질을 순환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본 작가의 해석이 도서관의 장소의 정위와 정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	
	정위		①도서관은 3차원의 네트워크라는 인문적 해석이 내부의 정위를 결정함 의사-도시적 내부공간은 외부와의 전이적 장소의 역할을 함 ②다양한 곡면의 바닥판들은 변화하는 기능을 유연하게 수용하여 실내에 비선형적 곡선, 유동적 공간 그리고 영역 간의 모호함을 통해 독특한 장소를 형성함
	정체성		①단순하고 투명한 외관이 형성됨 ②방문자는 도시를 끊임없이 방황하는 산보객의 관점에서 채과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은유를 통한 도시 분위기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분위기를 탈피하는 정체성을 부여함
콘스트랄	프로그램 해석	-주어진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주변 공원 이용객을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연속된 흐름의 관계를 의도함. 도심 속의 녹지공간에 입지한 복합문화시설을 이용객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정위 결정. 이는 이용객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흐름을 의도한 나선형의 동선과 빛, 시각적 모티프 등의 사용으로 나타남	
	정위		①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복합적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건물은 두 개의 도로(보행자, 차도)가 교차하는 나선형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의 띠에 의해 정위 형성 ②기능을 수용하는 프로그램의 띠를 통한 유동적 공간과 경계의 모호함을 통해 내부적 정위기 형성됨
	정체성		①내부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외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단순한 박스형임 ②은유를 통한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이 내부 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함. 이는 내, 외부의 연속된 경사로의 흐름, 내부 기둥의 불규칙한 배열과 기울어짐, 나무 등의 은유적 사용으로 극대화됨
에듀케토리움	프로그램 해석	-강의동을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의 장소로 봄. 이에 따라 이용객의 유입과 동선, 사회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됨.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건물의 정위가 결정되며, 외부형상의 정체성은 내부 프로세스의 부산물임	
	정위		①주변 건물에서 유입되는 이용객을 고려한 입구의 경사로가 전이적 장소로서 정위를 대표함 ②내부공간은 진입부의 십자 교차로를 통해 작은 공간으로 나뉘며, 다양한 동선의 흐름을 지닌 미로를 형성함. 정위는 프로그램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
	정체성		①미로와 같은 내부공간과 대조적으로 외부는 비물질적인 형상임. 내부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노출하여 입면이 사라짐. 외관의 정체성은 주변경관과 관계가 없음 ②내, 외부공간에서 연속적인 경사로를 사용하여 곡면 슬라브를 통한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형성됨
삼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해석	-미술관을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지닌 것으로 해석함. 이를 수용하는 혼합체의 공간을 설정하여 내부의 거대함의 정위를 형성함. 외부 형상은 주역가의 입지와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개념을 설정하여 경사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주변환경에 순응하는 정체성을 지님	
	정위		①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단면상으로 2/3이 지하에 묻히는 정위를 취함. 경사로를 통해 관람객을 유인하며 외부 테크의 조각공원들은 주변 환경과의 전이적 장소 형성함 ②내, 외부의 연속적인 경사로와 내부의 거대함은 유연함과 유동적인 공간적 특성을 부여함
	정체성		①대지의 경계면을 따라 건물의 외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비물질적인 유리의 사용으로 외관의 정체성이 극대화 됨 ②거대한 블랙콘크리트 박스에 의해 초현실적인 장소감을 획득
서울대 도서관	프로그램 해석	-미술관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설계의도를 지님. 전체적으로 주변의 입지를 고려하여 정위가 결정되며, 건물을 부유시킴으로써 주변에 여유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내부 공간은 주변환경의 은유적 표현에 의해 의사-도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정위		①건물을 상부로 띄움으로써 대지의 일부를 관람객과 행인에게 제공함. 경사로와 연속된 입구의 비워진 공간은 커뮤니티와 미술관의 교류의 장소로서의 정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②내부는 명확히 구획되지 않는 유기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장소의 내부적 정위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단, 다소 밀폐된 내부는 적절한 개구부를 통해 주변 환경을 유입함
	정체성		①주변 경관은 외부의 형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함. 부유하는 날렵한 형태와 투명 소재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대한 외관의 형상을 완화시킴. ②내부 중심부의 코어를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동선과 플라카보네이트의 인공조명, 계단식 강당 등의 은유적 수법은 미로와 같은 현대적 분위기를 제공하며 의사-도시적 분위기를 지님

대신에 주변의 경관은 내부공간에 은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입구의 경사로는 중심부의 코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도서열람, 전시, 강당의 공간들은 단일한 궤적을 따라 이동하도록 의도된다. 내부 중심부 코어의 끊임 없는 동선과 주변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벽체조명은 미로와 같은 현대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다소 밀폐된 내부 공간은 적절한 개구부를 통해 주변 환경을 끌어들이므로써 장소적 특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계단식 강당을 비롯한 내부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변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서 의사-도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숄츠의 장소이론을 바탕으로 콜하스의 공공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숄츠의 장소이론을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현대도시에서 건축의 장소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숄츠는 계슈탈트 이론에 근거하여 경관-건축을 그림-형상의 관점으로 장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이러한 계슈탈트적 경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숄츠의 이론은 건축과 도시경관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숄츠는 실존공간을 기하학적인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안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현대건축의 공간은 위상기하학적인 복잡,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숄츠의 장소이론을 현대건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숄츠가 도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한 인문적 배경이 장소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듯이 현대건축에서 인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한 작가의 프로그램의 해석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건축의 장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대건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현대의 전위적인 콜하스의 장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콜하스는 도시환경을 건축의 물리적인 배후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실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다. 또한 프로그램의 해석에 의해 장소의 정위와 정체성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의 인문적 배경이 콜하스의 장소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하스의 건축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프로그램의 복합적인 결과에 의해 정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도시적인 내부공간은 외부환경과

의 상징적인 전이공간을 형성하여 내, 외부간의 경계가 모호한 정위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유연한 프로그램의 해석은 내부공간의 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유동적이며 비선형적인 공간특성에 의해 내부 공간의 고유의 정위가 형성된다.

건물의 외부는 내부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조형적 형태를 지니며, 비물질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내부적 요인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내부의 분위기는 도시경관의 은유, 상징을 통해 의사-도시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로 전통적인 개념의 건물의 사용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장소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콜하스의 건축은 전통적인 개념의 물리적인 형태나 비례, 조화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도시환경에서 개별 건축물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을 통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적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개념의 장소적 특성을 획득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는 현대도시의 건축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숄츠의 장소이론을 현대건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현대건축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봉일범, 누적도시, 시공문화사, 2005
2. 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6
3. Heidegger, Martin, translated by Albert Hofstadter, Poetry, Language,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71
4. OMA/Rem Koolhaas, EL Croquis 53+79, 1999
5. OMA, Koolhaas, Rem and Mau, Bruce, S,M,L,XL, THE MONACELLI PRESS, 1995
6. Piaget, Jean, Translated M. Piercy and D. E. Berlyne,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Routledge, New York, 2002
7. Benturi, Robert, 라스베가스의 교훈, 태림문화사, 1983
8. Heidegger, Martin,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2006
9. Koolhaas, Rem, 김원갑 역, 정신착란증의 뉴욕, 태림문화사, 1998
10. Norberg-Schulz, Christian, 정영수 역, 건축론, 세진사, 1987
11. Norberg-Schulz, Christian,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2002
12. Norberg-Schulz, Christian, 민경호 외 3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13. Norberg-Schulz, Christian,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5
14. Piaget, Jean, 김태수 역, 구조주의 이론, 인간사랑, 1994
15. Relph, Edwrad, 김동국 역, 근대도시경관, 태림문화사, 1999
16. Savage, Mike 외 1인,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2002
17. Summerson, John, 18세기건축; 태림문화사, 1993
18. 김경훈, 램콜하스의 '거대함'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론, 1997
19. 김석영, OMA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실내공간의 랜드스케이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01
20. 박정대, 현대건축의 비선형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21. 김문덕, 네덜란드 근대건축의 상황과 전개, PLUS 2000. 01/ 2000. 11
22. SPACE, 2005. 01/ 2005. 12

<접수 : 2007. 2. 28>